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빠른 정답

1	2	3	4	5
⑤	④	③	③	⑤
6	7	8	9	10
③	⑤	④	③	③
11	12	13	14	15
①	④	①	②	③
16	17	18	19	20
③	①	⑤	④	③

1. 이론 윤리학에 대한 메타 윤리학의 비판 이해하기 [정답 ⑤]

[COMMENT] 도덕 판단의 타당성 검토는 메타 윤리학에서만?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나’는 메타 윤리학의 입장, ‘일부 윤리학자들’은 이론 윤리학의 입장에 있다.
 [선지 분석] ① 이론 윤리학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이해를 초월한 윤리학의 보편성을 간과하지 않는다. 이론 윤리학은 한 개인의 주관적 이해를 초월하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도덕 원리를 정립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② 이론 윤리학에서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유도하는 윤리학의 실천적 성격을 간과하지 않는다. 이론 윤리학은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하여 사람들이 그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도덕적 삶을 살게 하는데 윤리학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유도하는 윤리학의 실천적 성격을 간과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③ 이론 윤리학에서는 도덕 원리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윤리학의 주된 과제를 간과하지 않는다. 이론 윤리학은 보편적 도덕 원리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윤리학이기 때문이다.
 ④ 이론 윤리학에서는 도덕 판단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윤리학의 과제로 성립함을 간과하지 않는다. 이론 윤리학은 어떤 도덕 판단이 보편적 도덕 원리에 비추어 윤리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⑤ 메타 윤리학은 도덕 판단 자체가 객관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객관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진술이 아니라 단지 개인의 주관적 감정 표현이나 명령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탐구하고자 한다. 반면 이론 윤리학은 도덕 판단이 객관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하고자 한다.

2. 공자와 노자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④]

[COMMENT] 사회 규범에 대한 노자의 입장 파악하기!
 [제시문 설명] 갑은 유교 사상이 공자, 을은 도가 사상이 노자이다.
 [선지 분석] ① 유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존비진소를 분별하는 사랑은 별애(別愛)를 강조한다. 자신과 남을 분별하지 않는 평등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묵가의 입장이다.
 ② 불교의 입장이다.
 ③ 도가에서는 분별적인 지식을 멀리해야 한다고 본다.
 ④ 도가에서는 인위적 규범인 예법에 집착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따를 것을 강조한다.

⑤ 도가에서 부정할 진술이다. 도가에서는 인위적 규범인 예(禮)를 멀리해야 한다고 본다.

3. 롤스의 시민 불복종 이론 이해하기 [정답 ③]

[COMMENT] 2022 9평에서 모두를 혼란에 빠뜨린 그 개념...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사상가는 롤스이다.
 [선지 분석] ①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반드시 비폭력적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②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부당한 법률이나 정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부당한 법률이나 정책, 제도 등이 있더라도 시민 불복종 이전에 합법적인 수단들을 먼저 시도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③ 롤스는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 체제가 파멸하는 불행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내가 논의하고자 하는 세 번째이나 마지막 조건은 다수 복잡한 것일 수 있다. 그것은 앞서의 두 가지 조건은 흔히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시키기에 충분하지는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정의의 자연적 의무가 어떤 제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우리는 다음에서 이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어떤 소수자가 시민 불복종에 가담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 그와 적절하게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소수자도 마찬가지로 정당화된다. 적절히 유사한 상황의 기준으로서 앞서 나온 두 가지 조건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동일할 경우 두 소수 집단은 만일 그들이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정도의 부정의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똑같이 진실되고 정상적인 정치적 호소가 마찬가지로 소용이 없었다면 그들이 시민 불복종에 의거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민 불복종을 하기 위한 (방금 규정한 것과 같은 의미에서) 똑같이 타당한 사정을 가진 많은 집단들이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생각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경우 정의로운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하게 될 극심한 무질서가 따르게 된다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나는 여기서 체제를 파멸로 이끌지 않기 위해, 이로써 모든 이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 시민 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항의를 처리할 공의회의 능력에도 상한선이 있어서 시민 불복종을 하는 집단들이 하고자 하는 호소가 왜곡될 수도 있고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한 가지 혹은 양쪽의 이유로 인해서 항거의 형태로서의 시민 불복종의 효율성은 어느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감소하게 되며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제약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 롤스 「정의론」 -
 * 구체적이고 분명한 부정의, 최후의 수단

④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참여자들이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롤스에 따르면 개인의 종교적 신념 등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4. 칸트와 현실주의의 평화 이론 이해하기 [정답 ③]

[COMMENT] 칸트: 공화국은 좋지만 유일한 행위자는 아니야!
 [제시문 설명] 갑은 칸트, 을은 현실주의의 사상가 모겐소이다.
 [선지 분석] ㄱ. 칸트는 공화정 국가가 국제 사회의 유일한 행위자라고 보지 않았다. 칸트에 따르면 국가뿐 아니라 평화 연맹 등의 국제기구 등도 국제 사회의 행위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①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로 간주된다. (칸트 X)
-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번 문항 -

ㄴ. 칸트는 개별 국가들 간의 연방적 결합을 통해 평화 연맹을 결성하는 것이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ㄷ. 현실주의에서는 국가 간 세력 균형이 전쟁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ㄹ. 현실주의에서 부정할 진술이다. 현실주의에서는 국제 평화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현실주의에 따르면 국제 평화는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5. 칸트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⑤]

[COMMENT] 기초적인 윤리 의식만 있어도 풀 수 있는 문항.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사상가는 칸트이다.
[선지 분석] ① 칸트가 제시할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공리주의에서 제시할 조건이다.
③ 공리주의에서 제시할 조건이다.
④ 덕 윤리에서 제시할 조건이다.
⑤ 칸트가 제시할 조건으로 적절하다.

6. 불교의 죽음관 이해하기 [정답 ③]

[COMMENT] 불교의 죽음관에 관한 기본 개념들.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불교 사상의 입장이다.
[선지 분석] ㄱ. 불교에서는 참된 지혜가 현세에서도 얻어질 수 있다고 본다.
ㄴ. 불교에서는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는 오온의 해체를 죽음으로, 오온의 구성을 태어남으로 본다.
ㄷ. 불교에서는 만물이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는 연기의 법칙을 깨달으면 생사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ㄹ. 불교에서는 죽음을 괴로운 삶에서 벗어난 지극한 경지로 여기지 않는다. 불교에 따르면 괴로운 삶에서 벗어난 지극한 경지는 열반이다.

7. 중도주의와 자유주의의 성 윤리 비교하기 [정답 ⑤]

[COMMENT] 가장 기본적인 대립 구도로 만들어진 문항.
[제시문 설명] (가)는 중도주의, (나)는 자유주의이다.
[선지 분석] X: 자유주의에서는 중도주의에 비해 성이 지닌 쾌락적 가치를 더 강조한다. (높음)
Y: 자유주의에서는 중도주의에 비해 성관계의 정당화 조건으로서 사랑을 강조하는 정도가 낮다. 자유주의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사랑은 성관계의 정당화 조건이 아니지만, 중도주의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사랑이 성관계의 정당화 조건이기 때문이다. (낮음)
Z: 자유주의에서는 중도주의에 비해 욕구 충족만을 위한 성을 비도덕적으로 보는 정도가 낮다. 자유주의에 따르면 욕구 충족만을 위한 성적 관계도 당사자의 자유를 존중하고 해악 금지의 원칙을 충족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지만, 중도주의에서는 당사자 간 사랑이 없이 욕구 충족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행위가 비도덕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낮음)
따라서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이다.

8. 마르크스의 직업관 이해하기 [정답 ④]

[COMMENT] 분업에도 장점이 하나쯤은 있지 않겠어?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사상가는 마르크스이다.

[선지 분석] ① 마르크스는 분업 체계가 발달하면서 노동자의 인간 소외가 심화된다고 보았다.
② 마르크스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노동 착취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였다.
④ 마르크스는 기술적 분업의 확대가 노동자의 전면적 발달을 방해하지만, 생산력은 증대한다고 보았다.
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 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왜곡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9. 칸트, 베카리아, 루소의 형벌 이론 비교하기 [정답 ③]

[COMMENT] 베카리아와 루소, 의외의 공통 입장
[제시문 분석] 갑은 칸트, 을은 베카리아, 병은 루소이다.
[선지 분석] ㄱ. 베카리아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베카리아는 종신 노역형이 살인범을 수단으로 삼아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형벌이라고 보았다.
ㄴ. 베카리아뿐 아니라 루소도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베카리아는 사형이 시민의 생명을 해치는 형벌이므로 사회 계약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반면 루소는 사형이 시민의 생명을 해치는 형벌이 아니라 시민의 적으로 간주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형벌이므로 사회 계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ㄷ. 베카리아에 따르면 지속성이 낮은 형벌인 사형도 범죄 예방 효과를 아예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베카리아는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가 종신 노역형에 비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ㄹ. 루소는 살인범의 존속과 국가의 존속이 양립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살인범에 대한 사형이 국가의 존속을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0. 요나스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③]

[COMMENT]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존재에게도 권리를...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선지 분석] ㄱ. 요나스는 과학 기술이 야기할지도 모르는 부정적 결과에 따른 공포를 바탕으로 과학 기술을 통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ㄴ. 요나스는 현세대가 예견할 수 있는 결과는 물론 예견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ㄷ. 요나스에 따르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 의무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요나스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필연적으로 책임 의무로 이어진다고 보았으며, 오직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현세대 인간만이 책임 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ㄹ. 요나스는 미래 세대가 비록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존재라고 할 지라도 미래 세대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11. 우생학적 간섭에 대한 하버마스의 비판 이해하기 [정답 ①]

[COMMENT] 자유주의적 우생학과 하버마스의 대립 구도.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사상가는 하버마스이다.
[선지 분석] ㄱ. 하버마스는 유전적 자질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우생학적 개입은 자녀가 고유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정체성에 혼란을 준다고 보았다.
ㄴ. 하버마스는 유전적 자질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유전적 개입은 비판했지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유전적 간섭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ㄷ. 하버마스는 유전적 자질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우생학적 개입으로 태어나는 인간이 평등한 인격체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에서 우생학적 개입을 비판하였다.

ㄹ. 하버마스는 유전적 자질의 강화가 자녀의 독립적인 삶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12. 롤스와 노직의 분배 정의 이론 이해하기 [정답 ④]

[COMMENT] 익숙함과 낯설, 결국은 기출문제.

[제시문 설명] 같은 롤스, 음은 노직이다.

[선지 분석] ① 롤스는 기본적 자유를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의해 모든 개인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권리로 보았다.

② 롤스는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이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보았다.

③ 노직은 분배에 있어서 정의의 소유 권리론이 역사적이며, 분배가 정의로운지 아닌지는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④ 노직은 소유물이 정당하게 최초 취득되지 않았거나, 정당하게 이전되지 않았다면 그 불의를 교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개인이 자유롭게 이전한 재화의 경우 이전(transition)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이전(before) 최초 취득의 과정이 부당할 수 있으므로 노직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이 자유롭게 이전한 재화가 반드시 교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⑤ 롤스와 노직 모두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분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13. 정보 윤리에 관한 칼럼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①]

[COMMENT] 기본적인 독해력만으로도 풀 수 있다.

[제시문 설명] 칼럼은 인터넷을 활용한 뉴 미디어의 발달을 계기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포괄적으로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지 분석] ① 칼럼에 따르면 인터넷 환경에서 자유로운 토론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② 칼럼에 따르면 인터넷 환경의 발달은 각 개인이 서로의 의견을 보다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도록 만든다.

③ 칼럼에 따르면 자신을 비판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반박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칼럼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탄압은 정당하지 않다.

⑤ 칼럼에 따르면 인터넷 환경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에 대한 관용의 자세가 더욱 요구된다.

14. 테일러, 칸트, 레건의 환경 윤리 이론 비교하기 [정답 ②]

[COMMENT] 기출문제의 아이디어들이 버무려져 있다.

[제시문 설명] 같은 생명 중심주의 사상가 테일러, 음은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 칸트, 병은 동물 중심주의 사상가 레건이다.

[선지 분석] ㄱ. 테일러는 의식과 이성이 모두 없는 존재인 식물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칸트는 이성이 없는 존재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레건은 의식이 없는 존재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레건에 따르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삶의 주체뿐인데, 삶의 주체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ㄴ. 칸트의 입장이 아니다. 칸트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지만, 인간 외 존재도 수단적 가치를 지닐 수는 있다고 보았다.

ㄷ. 테일러와 레건은 탈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도덕적 지위를

지니기 위한 필요조건 중 이성적 능력은 없다고 보았다. 이성적 능력을 갖지 못한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이성적 능력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보았다.

ㄹ. 칸트의 입장이 아니다. 칸트는 인간이 오직 인간에 의해서만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고 보았다.

병(칸트): 우리는 인간 외에는 의무를 질 능력이 있는 다른 존재를 알지 못한다. 인간은 다른 존재와 관련한 자기의 의무를 이들 존재에 대한 의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4번 문항 -

15. 아리스토텔레스와 로크의 국가관 이해하기 [정답 ③]

[COMMENT] 기본 개념에 로크의 본성론을 엮어 놓은 구성.

[제시문 분석]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음은 로크이다.

[선지 분석] ㉠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보았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에 대한 시민의 복종이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로크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고 보지 않았다. 로크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백지와 같다.

㉣ 로크는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서 국가가 인간들의 상호 동의를 통해 구성된다고 보았다.

㉤ 아리스토텔레스와 로크는 모두 인간이 국가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16. 볼노브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③]

[COMMENT] 기출문제의 단순한 재구성.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사상은 볼노브이다.

[선지 분석] ① 볼노브에 따르면 거주는 타고난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시문에서도 “이런 거주는 본래부터 타고난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볼노브에 따르면 거주는 의미는 낮은 공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제시문에서도 “그러나 거주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낮은 공간에 존재하거나 머무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라는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볼노브는 거주 공간으로서의 집이 외부 세계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인간의 거주 공간은 집 밖의 세계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볼노브 O)
-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17번 문항 -

④ 볼노브는 거주가 행위가 아니라고 보지 않았다. 제시문에서도 “거주는 마음 내키는 대로 저지르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인간과 세계의 관계 전체를 규정하는 행위이다.”라는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볼노브는 거주 공간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참다운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볼노브: 집은 인간이 사는 체험 공간의 구체적인 중심이며, 이런 중심을 창조해야 하는 과제는 거주함으로써 실현된다. ... (중략) ... 인간의 참다운 삶을 위한 거주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쏟아부어 온전히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

④ 거주 공간의 소유는 참다운 인간의 삶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볼노브 X)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6번 문항 -

17. 엘리아데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①]

[COMMENT] 기출문제 개념과 낯선 개념의 적절한 조화.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사상은 엘리아데이다.
 [선지 분석] ① 엘리아데는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일상의 세계가 혼돈이 아니라고 보았다.

- ㄴ. 성스러움이 드러난 세계는 질서를 갖춘 세계이다. (엘리아데 O)
 - 2022학년도 EBS 수능완성 131p 17번 문항 -
- ㄴ. 엘리아데는 성스러움이 드러난 이 세계는 혼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2022학년도 EBS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50p 17번 문항 -

② 엘리아데는 인간이 현실의 삶 속에서도 최고의 정신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어떤 인간도 현실의 삶 속에서 최고의 정신성에 도달할 수 없다. (엘리아데 O)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번 문항 -

- ③ 엘리아데에 따르면 인간은 종교적 지향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성(聖)과의 만남을 체험할 수 있다.
- ④ 엘리아데에 따르면 성스러움이 드러난 자연물이 초월적 신 그 자체는 아니라고 보았다.
- ⑤ 엘리아데에 따르면 비종교적 인간은 세계를 성(聖)의 드러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① 비종교적 인간도 세계를 성(聖)의 드러남으로 인정한다. (엘리아데 X)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번 문항 -

18. 플라톤의 도덕주의에 대한 심미주의의 비판 이해하기 [정답 ⑤]

[COMMENT] 심미주의와 도덕주의의 가장 전통적인 쟁점.
 [제시문 설명] 가장 편지의 '나'는 심미주의 사상이 워일드, '당신'은 도덕주의 사상이 플라톤이다.
 [선지 분석] ① 반대로 도덕주의 사상이 플라톤이 심미주의에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심미주의에서는 예술의 목적이 오직 예술이어야 하므로 예술을 통해 도덕적 이상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반면 플라톤은 예술을 통해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심미주의에서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심미주의에서는 예술이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한다.
 ③ 심미주의에서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심미주의에서는 예술가가 예술 작품에 미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본다.
 ④ 반대로 도덕주의 사상이 플라톤이 심미주의에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심미주의에서는 예술의 목적이 오직 예술이어야 하므로 예술을 통해 인간이 도덕적 삶을 살도록 유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반면 도덕주의 사상이인 플라톤은 예술이 인간을 도덕적 삶으로 인도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심미주의에서는 예술가가 예술로써 오직 예술적 목적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도덕주의 사상이인 플라톤은 예술가가 예술을 통해 도덕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19. 싱어, 롤스, 노직의 해의 원조 이론 비교하기 [정답 ④]

[COMMENT] 노직의 원조 이론에 대한 핵심적 이해를 요구한다.
 [제시문 설명] 갑은 싱어, 을은 롤스, 병은 노직이다.
 [선지 분석] ① 롤스에게 제기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싱어뿐 아니라 롤스도 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가 인류의 보편적 의무임을 인정하였다.

- ⑤ 갑(롤스), 을(싱어) : 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는 보편적 의무로 간주해야 한다. (O)
 -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번 문항 -

② 롤스가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롤스에 따르면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변화시키는 것이지, 국제 사회에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롤스는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원조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보고, 차등의 원칙을 국제 사회에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갑(롤스) :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달리 만민법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모든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때까지 만민법에 따라 원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3번 문항 -

- ③ 노직이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노직은 소유권자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원조의 경우 이전에서의 정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노직은 원조를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자선 행위로 보았다. 반면 싱어는 원조를 윤리적 의무로 보았다.
- ⑤ 노직에게 제기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노직은 원조가 소유권자의 자발적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그러한 원조를 통한 빈곤 감소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20. 대북 제재에 대한 찬반 토론 이해하기 [정답 ③]

[COMMENT] 무난한 독해 문항으로 출제하였다.
 [제시문 설명] 갑과 을은 공통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어야 함을 인정하지만, 대북 제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갑은 대북 제재가 북한을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북한의 폐쇄성을 강화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보는 데 반해, 을은 현 상황에서 대북 제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
 [선지 분석] ① 갑, 을 모두 동의할 내용이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갑, 을 모두 동의할 내용이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갑은 동의하지 않고 을은 동의할 내용이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다.
 ④ 갑, 을 모두 동의할 내용이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갑은 동의하지 않고 을은 동의할 내용이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다.

- * 확인 사항
- 해설지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숙지했는지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출제진

- 유삼환 해운 수능윤리 연구소
- 이경호 오르비 닉네임: 윤리왕선생
- 딸기치즈케이크 오르비 닉네임
- 아타락시아 오르비 닉네임
- 22수능국어만점 오르비 닉네임
- 문제깎는 선변 오르비 닉네임

검토진

- 강수영
- 도우마 오르비 닉네임

유삼환, 이경호, 딸기치즈케이크, 아타락시아, 22수능국어만점, 문제깎는 선